

# 소프라노 림숙, 음악으로 빛어낸 인생의 하모니

- 음악이라는 한길 걸어온 소프라노 림숙의 예술 인생
- 상해음악학원에서 독일 함부르크까지
- 그리고 엄마를 울린 무대 연변음력설야회에 서기까지



소프라노 림숙

### ◎ 인생을 바꾼 멘토의 한마디

림숙은 “음악의 길에는 참 고마운 사람들이 많았다.”고 운을 떼며 림승용선생님이 성악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시절에는 자신의 인생을 바꿔준 멘토를 만나게 되었다고 말한다. 바로 당시 개인 지도를 해주던 리종천선생님이였다.

“사실 그때 제 실력에 대해 확신이 없었어요. 주변에 저보다 잘하는 친구들도 많았고 과연 제가 원하던 예술대학에 갈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죠. 그때 리종천선생님께서 ‘너는 충분히 실력이 있으니 상해음악학원에 지원해도 되겠다.’고 신심을 북돋아 주셨어요.”

중국에서 손꼽히는 예술 인재 요람인 상해음악학원은 림숙에게 꿈의 대학이었다. 하지만 전국에서 단 11명만 모집하는 경쟁률은 상상을 초월했다. 주저하는 림숙에게 리종천선생님은 자신의 가르침을 믿고 지망하라고

교수는 자신의 경력을 바탕으로 고민 해결자를 자처했다. 제자가 더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고 류학을 선택했을 때 리수영교수는 적극적으로 추천하며 응원해주었다.

### ◎ 독일의 명문 대학에서 만점 졸업자로 거듭나기까지... 그 도전과 성장의 시간들

2016년, 림숙은 그렇게 독일 류학 길에 올랐다. 국내에서 배운 전공을 이어 림숙은 독일 명문 국립 예술대학교인 함부르크 국립음악-연극대학교

무대에 서서 노래하는 모습을 상상하면 정말 행복해요.”

노래가 좋아서 음악을 시작했던 그 아이는 이제 여전한 음악인으로 성장했고 성악이라는 한우물만 우직하게 파오던 그녀는 이제 무대와 교단,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 있다. 가수로서의 활동과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병행하며 자신의 음악적 열정을 나누려는 것이다.

### ◎ 기나긴 세월 딸의 꿈에 ‘울인’한 부모님의 헌신 덕분에...

“무슨 음악공부를 10년이 넘게 하나?”는 주위의 이해 못할 시선도 가끔 있었지만 림숙은 이루려는 목표가 확실했기에 걸어가고 싶은 길을 뚜벅뚜벅 흔들림없이 걸어왔다. 방향이 없었다면 거짓말이지만 힘듦은 있었어도 포기하는 없었다.

“제 무대를 보면서 행복해지는 부모님을 보면 공부한 보람을 느껴요. 그분들이 계시기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부터 딸의 결정과 의사를 충분히 존중해주었던 부모님에 대한 존경과 감사함은 한두마디로 이루 말할 수가 없다.

지금까지 음악이라는 한우물을 묵묵히 팔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가족에게서 나왔다. 특히 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과 응원이 없었다면 지금의 자신도 없을 거라고 거듭 말한다.

“저희 엄마는 제가 하고 싶다는 일에는 무조건 ‘오케이’였어요. 그런 엄마가 있었기에 저는 무슨 일든지 자신감을 가지고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예술 쪽으로 크게 지지하지 않았던 아버지도 제가 음악에 진심으로 매달리는 모습을 보시고는 나중엔 오히려 외국에 나가 돈을 벌러 뒤바라지할 정도로 변하셨어요. 온 가족이 제 꿈에 ‘울인’했죠.”

림숙의 가족은 이번 연변음력설야회 방송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시청했다고 한다.

“제가 텔레비전에 나오는 걸 보고 친척들로부터 전화가 쇄도했어요. 지인들의 축하 문자도 끊이지 않았고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얼굴을 오랜만에 봤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십여년의 공부가 헛되지 않았음을, 그리고 포기하지 않은 제 자신이 너무 대견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 ◎ 음악이라는 외길, 그리고 앞으로의 꿈

림숙에게 음악은 삶 자체이며 호흡과 같은 존재이다. 모든 것을 쏟아부을 수 있고 관객과 소통할 수 있는 무대가 정말 행복한 만큼 교단에 설 때는 또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음에 성취감으로 충만하다.

그래서 둘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고 싶다면 똑같이 소중하다고 음악에 대한 욕심을 내비치기도 했다. 앞으로의 계획을 물으니 그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음악의 아름다움을 전하고 싶다고 생각을 밝혔다.

“상해음악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무대 활동도 계속할 거예요. 언젠가는 더 큰 무대에 서서 음악으로 사람들에게 힐링을 선사하고 싶어요.”

어릴 적 노래 부르기를 좋아했던 평범한 소녀에서 상해음악학원을 거쳐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이제는 교단에 올라 후학을 양성하며 무대에서 노래하는 소프라노 림숙, 그녀의 음악 인생은 현재 한창 진행형이다. 그의 목소리가 닿는 곳, 그곳이 바로 그의 무대이며 그 무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확장될 것이다.

“음악은 제 삶의 전부예요. 앞으로도 음악과 함께, 음악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며 살아가고 싶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고향 연변에서 더 큰 음악회를 열어 저를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 김기혜기자



## 민족관현악 매력 뽐낸 음악회 길림성음악당서



길림성당위 선전부와 길림성문화관광청에서 주최하고 길림성연예그룹에서 주관한 ‘원석악연(元夕乐宴) 민족관현악 음악회가 보름달인 3일 길림성음악당에서 열렸다.

길림성교향악단이 연주를 선보인 음악회는 관현악의 아름다운 선율과 웅장한 북소리가 어우러진 가운데 10여곡의 민악 작품이 차례로 연주되며 명절의 풍성함과 예술적 감성을 담은 음악 향연을 관객들에게 선사했다. 중국과학원 원사와 중국국정원 원사, 과학자, 외국인 전문가, 외자기업 고위 관계자, 외국인 교사 및 류학생 대표들도 현장을 찾아 공연을 관람했다.

이번 음악회는 젊은 지휘자 담희로의 지휘로 진행되었다. 그는 “정월대보름을 맞아 이렇게 훌륭한 음악당에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고 전하며 자신의 지휘 경력에 장춘과 길림성교향악단에서 시작된 만큼 이곳에서 이번 음악회를 지휘하게 된 것은 각별한 의미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이어 그는 “장춘은 명절 분위기가 유난히 따뜻하고 경쾌한 것 같다. 호남성 출신인 나로서는 이곳에서 관객들과 함께 명절을 보낼 수 있어 큰 행복을 느낀다.”고 말했다.

길림성교향악단 민족관현악단은 완성도 높은 공연을 위해 음력설전부터 음악회 준비에 공을 들여왔다. 악단의 수석이자 1급 연주자인 리인미는 “이번 음악회는 선율의 연결과 감정의 흐름 등을 세밀하게 다듬었다. 수석으로서 단원들과 함께 가장 충실한 연주로 중국 민악의 깊이

와 온기를 모든 관객에게 전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번 음악회 곡목 구성도 세심한 고민이 돋보였다. <춘절서곡>(春节序曲)은 경쾌한 리듬으로 명절의 생동감 넘치는 장면을 그려냈고 <백조초봉>(百鸟朝凤)에서는 새납소리가 온갖 새들의 지저귀음을 실감나게 표현해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냈다.

또한 <춘강화월야>(春江花月夜)는 비파와 통소의 조화로운 선율로 시적이면서도 맑고 아름다운 분위기를 자아냈다. 이외에도 <단원인장구>(但愿人长久), <대택문>(大宅门), <새마>(赛马)와 음악회의 대미를 장식한 <룡등호약>(龙腾虎跃) 등 10여곡의 작품이 다양한 분위기를 넘나들며 전통적인 음악과 지역적 특색을 자연스럽게 녹여냈다.

특히 작곡가 왕단홍이 창작한 <노동·서설영춘>(闹冬·瑞雪迎春)은 동북지역의 특색을 잘 표현했는데 이 곡의 열정적인 양걸 선율은 공연 당일 내리던 함박눈과 절묘하게 어우러지면서 이번 음악회의 뚜렷한 지역 정체성을 형성했다.

이렇듯 다채로운 공연은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다. 현장을 찾은 한 외국인 전문가는 중국 전통 음악에 대해 “힘이 넘치면서도 깊은 울림이 있다.”고 극찬했으며 시민들은 “집앞에서 동북 특유의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 정월대보름이 더욱 의미 있고 행복하게 느껴졌다.”고 소회를 남겼다.

/ 글 오건기자 / 사진 길림일보



고향의 무대인 연변음력설야회에서 열창하며 벅찬 순간을 만끽했다.

조언했다. 그 조언과 추천에 힘입어 림숙은 과감히 도전을 결심했고 결국 당당히 합격의 영광을 안았다.

### ◎ 꿈의 대학 상해음악학원에서 연구생 졸업하기까지의 그 치열한 나날들

전국에서 모인 인재들 사이에서 림숙은 자신의 부족함을 절감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모인 친구들이라 다들 실력이 출중했어요.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죠. 하루하루가 지루했어요.”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행운이 찾아온다고 했던가. 상해음악학원에서 림숙은 또 한명의 인생 멘토를 만난다. 본과 5년, 연구생 3년 동안 지도교수였던 리수영교수는 학업뿐만 아니라 생활 방법에서도 림숙에게 수많은 조언과 도움을 주었다.

“리수영교수님은 정말 어머니 같은 분이셨어요. 음악적으로는 물론이고 인생의 방향을 잡을 때마다 현명한 조언을 아끼지 않으셨죠.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 리수영선생님의 영향이 정말 컸습니다.”

연구생을 1등으로 붙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더 넓은 세계에서 좀 더 배우고 싶어했던 림숙에게 리수영

(HFMT HAMBURG)에서 성악 전공 연구생과 박사 과정을 완수했다.

“독일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어요. 언어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새로웠고 또 한번 치열한 경쟁 속에 뛰어들어야 했죠.”

하지만 음악에 대한 열정 하나로 버틸 수 있었다며 그때를 회상했다. 독일에서도 림숙은 변함없는 노력으로 자신의 길을 개척해나갔다. 외국어 공부부터 전공에 이르기까지 피나는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21년 박사과정을 만점으로 졸업하는 쾌거를 이뤘다.

### ◎ 음악이라는 한우물만 판 그녀, 이제 두마리 토끼 잡고 싶다

2022년 귀국한 림숙은 2023년 9월, 광주의 상해음악학원에서 교단에 올랐다. 무대에 서는 것도 좋아하지만 배운 지식을 전수하는 성취감도 남다르다고 한다.

“제자마다 제가 가르쳐준 대로 스펀지처럼 흡수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렇게 뿌듯할 수가 없어요. 그 아이들이 언젠가는 제가 섰던 무대, 더 큰

## 연길만달영화관, 음력설 기간 전국 '100 강'에 올라



2026년 음력설 연휴 기간 동안 전국 영화 흥행 수익(예매 포함)이 35억원을 돌파하며 영화시장이 지속적인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길림성의 흥행 수익이 5,654만원에 달해 주목받고 있다.

한 통계에 따르면 길림성의 5개 극장이 전국 100대 극장에 이르는 울림주요 극장의 경쟁력이 두드러졌다. 량질의 영화가 관람 열풍을 이끌고 ‘영화+’ 융합 소비가 설 연휴 신규 문화관광의 새로운 포인트로 부상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랭킹 데이터를 살펴보면 연길만달영화관(연길만달광장IMAX점)이 왕홍도시의 인기를 입증하며 길림만달영화관(창을안다광장IMAX점), 장춘환영영화관(활력성IMAX점), 사평만달영화관(사

평만달광장IMAX점), 장춘만달영화관(구아매장IMAX점)과 함께 이번엔 전국 100대 극장으로 선정되었다.

이 밖에도 올해 음력설 연휴 기간 동안 장춘영화그룹이 공동 출품한 <표인>이 뛰어난 입소문을 바탕으로 박스오피스 역주행 흥행에 성공하며 이번 시즌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이는 길림성 본토 영화 창작 역량을 유감없이 보여주는 방증이다.

이와 같이 입소문이 좋은 작품의 반란, 영화관 서비스 업그레이드, 업계간 관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는 극장가를 뜰색이게 했다. 말미해의 설 연휴 극장가는 전성 문화관광광산업 발전에 강력한 동력을 주입했다.

/ 길림발부